

江陵地域의 古代山城

李 俊 善*

| | |
|-------------------|---------------------|
| ◀目 | 次▶ |
| 1. 序 言 | (3) 江東·玉溪·墨湖地區 |
| 2. 地域의 概觀 | 4. 立地面에서 본 古代山城의 類型 |
| 3. 古代山城의 分布와 그 景觀 | (1) 野山型 山城 |
| (1) 連谷·城山地區 | (2) 高山型 山城 |
| (2) 旺山·邱井地區 | 5. 結 語 |

1. 序 言

現在 江原道 江陵市에 인접한 溟州郡 一帶에는 大小의 山城들이 남아 있다. 이 山城들은 太白山地의 分水嶺을 境界로 하여 그 東斜面의 곳곳에 分布하고 있는데, 특히 江陵市域一帶의 丘陵地帶 周邊에 集中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여기서 江陵地域이란 이러한 山城들이 分布하고 있는 太白山地의 分水嶺以東의 溟州郡全域을 말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江陵地域은 남쪽의 三陟과 더불어 일찍부터 東海岸쪽으로 進出하고 있었던 新羅의 前哨基地로 利用되고 있었거니와, 그러한 사실은 《三國史記》 新羅本紀 初半部의 여러 곳에 記載되어 있다. 한편 同書 地理志에는 郡縣의 沿革內容이 실려 있는데, 그에 依하면 대체로 小白山地一帶를 境界로 하여 中部地方까지는 본래 高

句麗의 領域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記事는 新羅와 高句麗 兩國의 領域擴張過程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時代의 狀況下에서 山城 등의 防禦施設이 널리 보급되어 갔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當時의 築城事業은 水利事業과 함께 大規模의 土木工事였던만큼, 그 背景에는 勞動力의 動員組織이 前提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相應한 權力의 集中化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것은 나아가 農業生産의 基盤위에서 있었을 것임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결국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稿에서 古代의 山城을 考察하려는 基本적 立場은 바로 이러한 데에 두고 있었다¹⁾. 그러나 關係文獻史料가 빈약할 뿐 아니라, 이런 弱點을 克服할만한 考古學 등의 隣接分野의 研究方法을 충분히 援用할 수 있는 立場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野外調查(地表調查)의 結果와 일부의 文獻資料를

*關東大學 助教授

※ 이 論文은 1980年度 文教部 學術研究費에 依한 것임.

1) 觀點은 다르지만 本稿를 作成하는데 도움이 된 主要 論文들은 다음과 같다.

閔德植, 1980, “鎮川 大母山城의 分析的 研究,” 韓國史研究, 第29號, pp.1-51.

尹武炳·成周鐸, 1977, “百濟山城의 新類型,” 百濟研究, 第8號, pp.9-32.

李元根, 1981, “三國時代 城郭研究,” 檀國大 博士學位論文.

高橋誠一, 1972, “古代山城의 歷史地理,” 人文地理, 第24卷 5號, pp.1-27.

浜田耕策, 1977, “新羅의 城·村設置와 州郡制의 施行,” 朝鮮學報, 第84號, pp.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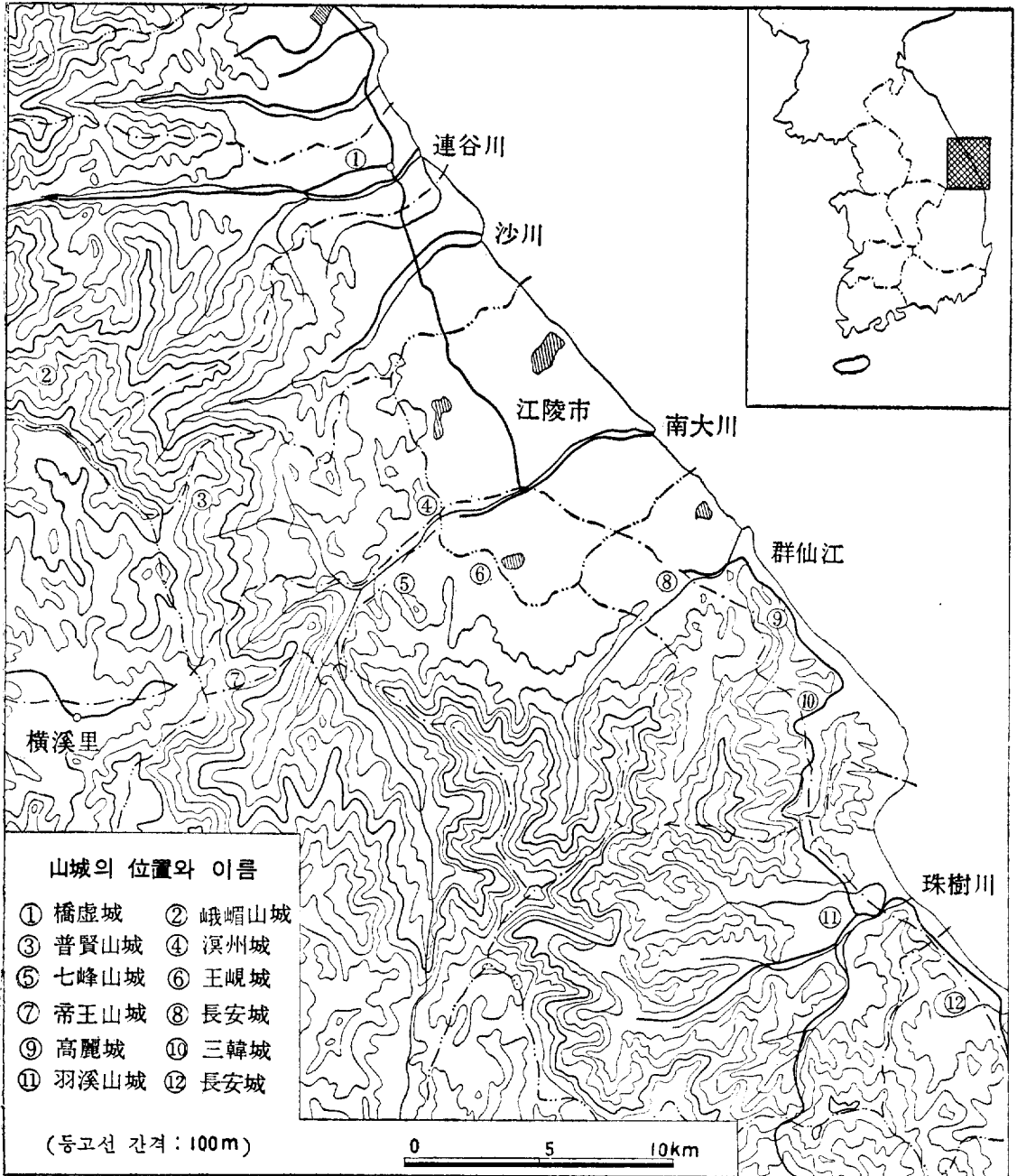


그림 1 江陵地域의 山城分布圖

利用하면서 江陵地域에 分布하는 古代山城들을 그 立地上的 特色을 中心으로 類型化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江陵地域의 山城에 대한 세부적인 研究는 물론, 韓國山城에 대한 全般적인 考察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 地域의 概觀

本研究地域은 太白山地의 分水嶺以東의 斜面中 대체로 江原道 江陵市와 溟州郡 一帶에 해당된다. 이 地域은 全體의 으로 서쪽의 急傾斜의 山地와 이에서 分岐하는 山脚 및 丘陵들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들은 매우 開析되어 있다. 이 가운데 邱井面의 背後山地를 이루는 七星臺(953 m)로부터 江東面 正東里 쪽으로 뻗는 高度 300 m 以上の 山脚은 海岸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그 북쪽으로는 江陵市域을 中心으로 하여 100 m 미만의 丘陵地帶가 展開되어 있다. 이 山脚과 丘陵들은 列狀을 보이면서 東海쪽으로 뻗고 있는데, 이들의 사이 사이에는 서쪽의 山地에서 發源하는 小規模의 河川들이 흐르고 있다. 즉 북쪽에서부터 連谷川, 沙川, 南大川, 群仙江, 珠樹川 등이 그것으로서 이들은 대개 上流에서 北~北東쪽으로 흐르다가 中流 또는 下流에 이르면서 北東~東쪽으로 方向을 바꾸어 東海로 流入한다. 이 河川들의 下流에는 비교적 넓은 灣入狀 沖積地가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江陵市街地에 隣接한 南大川邊의 그것은 가장 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內容은 <그림 1>에 의하여 把握될 수 있다.

本地域의 基盤岩으로는 白堊紀로 추정되는 安仁花崗岩이 가장 넓게 分布하는데, 이것은 주로 江陵周邊의 丘陵地帶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 곳의 西·南쪽의 背後山地에는 花崗片麻岩을 비롯하여 平安系 寺洞統·高坊山統에 속하는 砂岩 및 Shale 과 珉岩·Slate·結晶片岩 등이 分布하여²⁾ 岩質의 差異가 地形發達에 反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上述한 바와 같이 南大川邊의 沖積地와 그 周邊의 丘陵地가 펼쳐져 있는 江陵附近은 嶺東地方 全域을 통해서도 가장 넓은 低丘陵地帶를 形成하고 있다. 이러한 自然的 背景과 關聯하여 이 地域에는 일찍부터 農耕基盤의 初期 國家가 形成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前近代社會의 中心의인 產業이 農業이었다고 推定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三國史記》에서는 이와 關聯되는 內容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本高句麗河西良一作何瑟羅 後屬新羅……善德王時爲小京置使臣 太宗王五年……以何瑟羅地連鞞鞞 罷京爲州置軍主以鎮之 景德王十六年改爲溟州 今因之 領縣四……」³⁾

이에 의하면 江陵一帶은 高句麗의 南進時에 그 領域內에 編入되어 何瑟羅로 呼稱되었으나, 그후 新羅의 北進政策이 推進됨에 따라서 그 所領이 되어 왔으며, 특히 統一期 前後에 있어서는 軍主를 두어 鎮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統一이 完了된 後에는 溟州로 改稱되었고, 領縣이 4個이었음도 附記되고 있다.

이와 같이 高句麗와 新羅의 領域 擴張期에 각각 軍事的 據點으로 이용되어 온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地域은 兩國에 의해서 새로이 開拓된 要衝地였다고 보다는 이미 그 以前에 既存의 土着 勢力集團이 形成되어 있었고, 그것이 經濟的·軍事的 要地로 浮刻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嶺東에 있어서 本地域의 이러한 中心地의 位置는 高麗 및 朝鮮時代를 통해서도 繼續되었다⁴⁾.

3. 古代山城의 分布와 그 景觀

本地域의 城址로는 총 14個所가 남아 있다⁵⁾. 이 가운데 「邑城」과 世稱 「濊國古城」은 考察의 對象에서 除外시켰다. 그 이유는 「邑城」이란 대체로 平地城이고, 「濊國古城」은 “邑城 동쪽에 있다”⁶⁾고 하는데, 住民들의 傳言에 의하면 「邑城」과 마찬가지로 平地城으로 推定되기 때문이었다. 따라

2) 建設部, 1963, 太白山地域 建設綜合計劃 調查報告書, 附圖 5, 太白地區地質圖; 張昊, 1977, “江陵周邊의 低位受蝕面 地形研究,” 地理學研究, 第3號, p. 153.

3) 《三國史記》卷 35, 雜志 4 地理 2 溟州條.

4) 《新增東國輿地勝覽》卷 44,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建治沿革條.

5) 臨瀛誌 發刊委員會, 1975, 《臨瀛誌》, pp. 217-19.

6) 《新增東國輿地勝覽》卷 44, 江陵大都護府 古跡條.

서 나머지 12개의 城이 山城인데, 여기서는 이들을 便宜上 3個의 地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連谷·城山地區

(1) 坊內里的 橋虛城⁷⁾ 本城은 連谷面 所在地의 북서쪽에 인접한 丘陵(40m)의 稜線과 그 南斜面을 따라서 築造되었다. 이 內部에는 緩傾斜의 谷地가 발달되어 있고, 그 入口는 극히 좁으므로 外部로부터 隱蔽保護될 수 있는 곳이다.

이 城의 남쪽에는 連谷川이 東流하고 있으며, 그 兩岸에 넓은 沖積地가 발달되어 있다. 城의 둘레는 약 1km이며, 높이 1m, 上部의 폭은 2m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土築城이며, 自然石을 이에 부분적으로 混合한 결과 正確한 規模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이 城에는 北門址로 推定되는 부분이 관찰되며, 城內部的 下半部쪽에는 10餘戶의 家屋이 分布하지만, 上半部에는 建物址로 추정되는 平坦地들이 보인다. 성안에는 土器 및 瓦片들이 散布되어 있다. 現地 住民들의 傳言에 의하면 豫備軍壕造成 作業中에 土器類가 蒐集된 것을 계기로 그後 多數의 土器類가 城內에서 不法으로 發掘·搬出되었다고 한다. 現地 調査에서 수집된 土器片들은 <사진 1>과 같이 적어도 2種의 토기편으로 區分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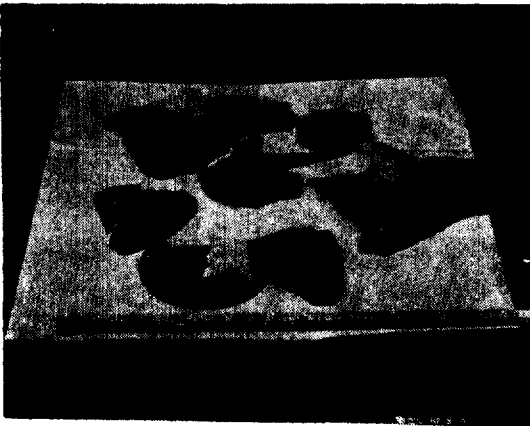


사진 1 橋虛城內에서 出土된 土器片

左側의 것은 新羅의 有蓋高杯型 土器片으로 보이며,⁸⁾ 右側의 것은 文樣이나 形態로 보아 金海式 土器⁹⁾로도 추측되나 筆者로서는 正確한 器型을 구별하기 곤란하다.

이 城의 初築年代는 알 수 없지만, 뒤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新羅時代로 소급되어서 무방할 것이다. 또한 連谷一帶는 三國時代에 文山縣으로 본래 高句麗 領域에 소속되었다가 그 후 新羅의 영역으로 編入되었으므로¹⁰⁾ 당시 縣治와 관련되었던 山城으로 간주된다.

(2) 小金剛의 峨嵋山城

이 城은 三山2里 小金剛의 西동남쪽에 위치한 小金剛山(714m)을 頂點으로 하여 축조되었으나 붕괴된 부분이 많다. 九龍瀑布의 동·서쪽 능선을 따라 구축된 성으로, 동쪽의 것은 小金剛山 정상부를 거쳐 다시 谷地까지 繼續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약 3km에 걸쳐 있으나, 서쪽의 것은 폭포 부근에만 나타나 400m 정도에 불과하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동쪽 城壁中 標高 570m 자점 부근에서 남서쪽으로 뻗는 山脚을 따라서 약 400m의 성벽이, 그리고 頂上部에서 서쪽으로 뻗는 山脚을 따라서는 약 700m의 성벽이 각각 성 내부의 各地를 향해서 뻗고 있으므로 이 성은 2~3 겹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形態를 보인다.

이 성의 남서쪽에는 전혀 築城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東壁의 內·外側斜面은 모두 절벽에 가까운 급경사를 이루었고, 그 사이의 稜線部는 극히 좁고 起伏이 심한 곳이 나타나며, 성안에는 岩壁이 多數 分布하여 谷地를 제외하면 步行이 곤란할 정도이다. 성의 入口인 구룡폭포 부근은 매우 좁으나, 內部的 谷地는 비교적 넓다.

크기가 다양한 斑瀾岩으로 축조되었고, 성벽의 규모는 곳에 따라 다르며, 높이 1~2m, 上部의 폭 1m, 총길이는 약 5km이다. (사진 2 참조) 성안에는 建物址로 추정되는 平坦地가 수개처에서 발견되지만, 土器나 瓦片등의 遺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¹¹⁾. 그리고 이 성은 북쪽의 連谷川

7) 臨瀛誌發刊委員會, 前掲書, p.218. 以下 各城의 名稱도 同書에 따르기로 한다.

8) 한병삼, 1974, 토기와 청동기, 교양국사총서 8, p.18 및 pp.92-4,

白弘基, 1981, “江陵 草堂洞 古墳群에 대하여,” 臨瀛文化, 5, pp.59-64.

9) 金元龍, 1981, 韓國 古美術의 理解, 대학교양총서, 7, pp.213-14.

10) 註 3)과 同

11) 이 곳 內洞에 거주하는 崔景洛氏(48歲)에 의함.



사진 2 峨帽山城의 北壁

邊의 低地보다도 老人峰(1338 m)을 중심으로 하는 太白山地 分水嶺쪽에 더 近接하고 있어 立地上의 特色을 보인다.

(3) 普光里的 普賢山城

一名 大公山城으로 普光里 서쪽의 大弓山(1000 m)¹²⁾의 능선부를 中心으로 남·북양쪽의 완만한 斜面을 둘러싸는 성이다. 성의 東남·북쪽外側은 급사면인 반면, 서남단부는 緩傾斜의 능선으로서 太白山地 分水嶺을 이루는 서쪽의 坤申峰(1131 m)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근의 太白山地 分水嶺과는 100여 m의 고도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림 3 참조). 성안의 頂上部에서는 부근의 嶺東地方 全體를 眺望할 수가 있다.

크기가 다양한 斑孺岩으로 축조된 이 성벽은 높이 1~2 m(사진 3 참조), 총길이 약 3 km이며, 東壁의 일부는 순수한 土城으로서 수개처에 望臺와 같은 石築部가 돌출해 있다. 이 石築部도 外側단 石壁이고, 內側은 土壁(下部의 폭 7 m)이며, 그 안쪽에는 城壁과 併行하는 低地가 보이는데, 이는 성벽의 붕괴를 防止하기 위한 시설로 생각된다. 東·西門址가 각각 배열된 듯한데, 특히 前者에는 門柱礎石(88×65 cm)과 그 표면에서 2개의 홈(18×7 cm, 깊이 3 cm)이 관찰된다. 성안에는 建物址로 보이는 平坦地가 곳곳에 나타나며 土器 및 瓦片도 散在한다. 東門址 부근의 小谷地에는 井址의 흔적이 관찰되며, 初築年代는 未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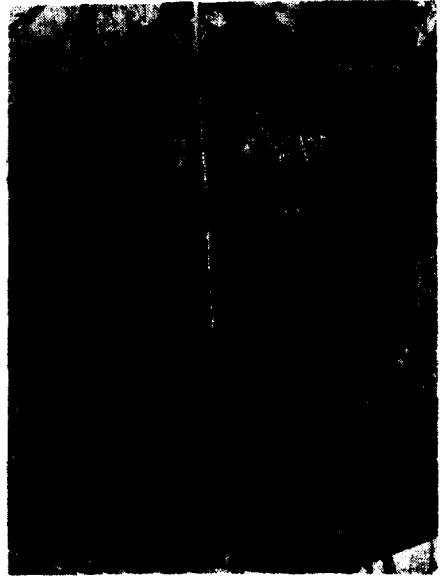


사진 3 普賢山城의 南壁

이나, 朝鮮初期에 古蹟으로 表記되고 있는 사실¹³⁾에서 적어도 高麗以前으로 소급될 것으로 생각된다.

(4) 金山里的 溟州城

一名 長安城¹⁴⁾으로 長安洞의 북쪽 丘陵(122 m)을 頂點으로 그 南斜面의 2개의 小谷地를 둘러싸는 성이다. 이 谷地들의 고도는 낮지만, 그 入口가 매우 좁고 성벽의 外側은 급사면을 이룬다. 남쪽에는 南大川邊의 沖積地가 북동-남서方向으로 발달되어 있다.

성벽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變成岩 및 細粒質 花崗岩으로 축조되었고, 그 위의 얇은 土層이 被覆되어 있으며(사진 4 참조), 西壁은 대체로 붕괴되었다. 성의 높이는 外側 3~5 m, 內側 1~1.5 m, 폭은 基底部 5 m, 上部 1~2 m, 총길이는 1 km 정도이다. 성내에는 수개의 建物址가 관찰되며, 土器 및 瓦片이 흩어져 있는데, 이 곳에서 「溟州城」 3字가 새겨진 瓦當이 수집되었다고 한다¹⁵⁾. 俗稱 장안골(또는 建金洞) 入口에는 1942년에 세워진 江陵金氏의 始祖 金周元의 「溟州郡王古都紀念碑閣」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

12) 日帝時代(1918年)發行의 1:50,000 地形圖 참조.

13) 註 6)과 同.

14) 江原日報社, 1975, 太白的 邑面, 江原文化叢書 9, p.167.

15) 臨瀛誌發刊委員會, 前掲書, p.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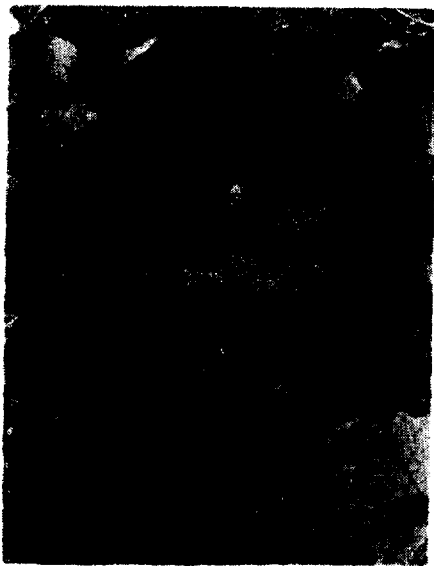


사진 4 溟州城의 東壁

루어 볼 때 이 성은 新羅統一時代로 소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旺山·丘井地區

(1) 旺山里의 帝王山城

大關嶺 동쪽의 帝王山(840 m) 頂上의 능선부와 그 南斜面에 발달된 두개의 谷地를 둘러싸는 성이다. 성내의 곡지가 이어지는 곳에는 성벽의 자취가 없으나, 축성 당시에는 水口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성안의 頂上部는 江陵一帶를 眺望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크기가 다양한 砂岩으로 축조된 성이었으나, 거의 붕괴되어(사진 5 참조) 극히 일부분에서만



사진 5 帝王山城의 西壁

1.5~2 m의 성벽이 남아 있다. 총길이는 3 km 정도이며, 西壁에는 평평한 基盤岩 위에 石材로만 축조된 부분이 있으나, 능선부에는 土·石混築의 부분도 관찰된다. 성벽에 포함되어 있는 赤色 및 黑灰色의 瓦片을 비롯하여 성내에는 土器片들이 散在하는데, 이들은 특히 남서쪽의 성벽 부근과 능선부의 建物址로 보이는 平坦地에서 많이 발견된다.

(2) 濟飛里의 七峰山城

이 성은 濟飛里의 背後山인 七峰山(360 m) 頂上部的 능선과 그 북동쪽 사면에 축조되었다. 정상부는 동쪽의 江陵市域一帶의 丘陵地帶를 觀望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前述한 溟州城과 같이 表面은 얇게 흙으로 덮여 있으나, 그 밑에는 다양한 크기의 片岩으로 구축되었다(사진 6 참조). 石築部의 높이는 1.5~2 m로 추정되나, 대부분 붕괴되었고, 총길이는 약 1 km이다. 성벽의 石材 사이에서는 土器 및 瓦片이 發見되었으며, 능



사진 6 七峰山城의 西壁

선부 및 東斜面에는 建物址로 여겨지는 平坦地들이 나타난다.

(3) 餘賢里의 王峴城

一谷 長安城으로 왕고개의 북쪽 丘陵(60 m)의 南斜面에 발달된 小谷地를 둘러싼 半月形의 土·石混築城이다. 이곳에서는 성의 북서·남동쪽에 展開된 완사면 一帶를 眺望하기 쉽다. 성벽과 주변의 완사면과의 比高는 20 m 정도이나 북벽의 外側은 급사면을 이룬다.

水成岩 系統의 變成岩으로 축조되었고, 石材는

북벽 아래의 邱井川邊의 礫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사진 7 참조). 여기에도 土器 및 瓦片은 散布되어 있고, 특히 靑銅製 spoon이 수집되었다. 성의 둘레는 500 m 정도이며, 성안에는 建物址로 보이는 平坦地와, 南壁直下에 井址가 分布한다.



사진 7 王記城址

3. 江東·玉溪·墨湖地區

(1) 茅田里的 長安城

이 성은 江東國民學校의 북쪽 丘陵(70 m)에 발달된 小谷地를 둘러싸는 것으로, 그 前面에는 群仙江 下流의 沖積地가 발달되어 있다. 涇州城과 같이 石築部위에 얇은 土層이 덮여 있고, 성벽의 높이는 3 m, 上·下部의 폭은 각각 2 m, 5 m이며 城周는 약 600 m이다.

南壁中央部の 切斷된 部位에는 門礎石으로 보이는 盤石(80×80 cm, 두께 30 cm)이 殘存하는 점으로 보아 城門이 存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8 참조). 東壁은 谷地를 횡단하는 部分이었으나, 耕地로 개간되어 兩端部만 관찰될 뿐이며, 부근에 井址가 分布했던 것 같다. 南·西·北壁에서 각각 10 m 아래쪽에는 削土하여 구축한 듯한 別個의 土城跡이 나타나며, 성벽의 주위에는 土器 및 瓦片이 散在한다. 이 성은 '濊國時의 土城'¹⁶⁾이라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2) 正東里 성재의 高麗城

16) 濊國誌發刊委員會, 前掲書, p. 219.

17) 正東 1里 1班 성재의 崔龍明氏(84才)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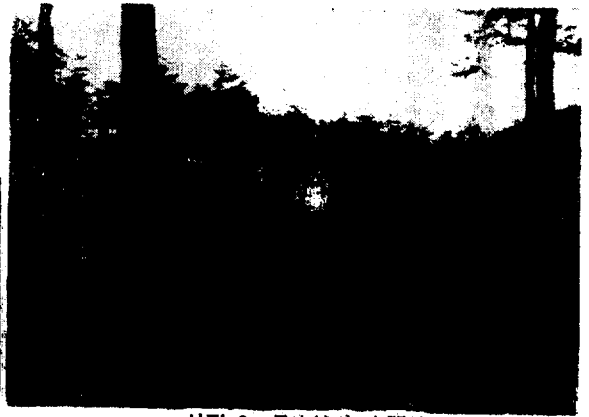


사진 8 長安城의 南門址

本城은 성재의 동쪽에 발달된 고도 50~100 m의 海岸 段狀地中 60~90 m 지점에 축조되었다. 성의 동쪽에 있는 段狀地 末端部에는 江陸~玉湫간의 舊道路가 달리고 있다. 크기가 다양한 砂岩으로 구축된 순수한 石城이며, 성벽의 높이 5 m, 上部의 폭 3 m, 둘레는 약 600 m이다. 東·北壁은 붕괴되었으나, 西·南壁은 거의 原形을 유지하고 있다(사진 9 참조).



사진 9 高麗城의 南壁

南壁의 石築部分 밑에서는 赤黃色土와 크기가 cobble 以下인 圓礫이 혼합된 상태로 관찰되는데 그 표면이 灰白色을 보이면서 堅固한 점으로 보아 鹽分이 포함된 板築部로 생각된다. 北門址가 存在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 높이 3 m 둘레 140 cm 정도의 石製의 門柱가 발견되었다고 한다¹⁷⁾. 성내에는 土器 및 瓦片이 散在되어 있다.

(3) 山城隅里的 三韓城

이 城은 正東川 下流의 沖積地 쪽으로 돌출한 標高 50~90 m 의 山脚末端部에 축조되었다. 이 곳의 南·北쪽에는 각각 좁고 긴 谷地가 발달되어 있어 江陵~玉溪간의 舊道路가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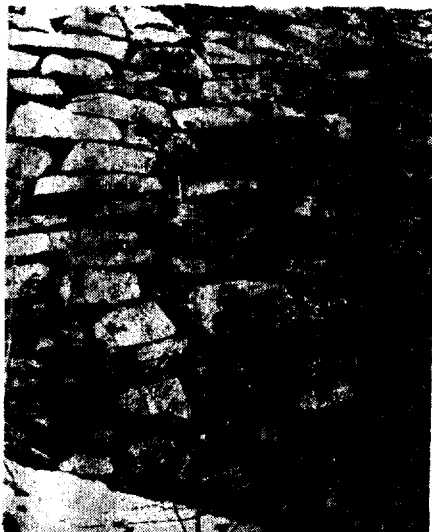


사진 10 三韓城의 南壁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shale 과 花崗岩으로 構築된 石城으로 城壁의 높이는 2.5 m, 둘레는 약 600 m 이다(사진 10 참조). 성벽은 거의 붕괴되었으나, 南壁만은 부분적으로 原形을 유지하고 있으며, 城內에는 瓦片이 散在한다.

(4) 縣內里 城村의 羽溪山城

本城은 珠樹川 下流의 沖積地 쪽으로 돌출한 丘陵(60 m)의 末端部에 축조되었다. 城跡은 南서쪽을 頂點으로 하여 북동쪽의 緩斜面을 둘러싸고 있다(사진 11 및 그림 2 참조).

西壁은 上水道 管理事務所 建設工사로 자취조차 없어졌으나, 南壁의 서쪽에서는 높이 3 m, 上部의 폭 1.5 m 의 原形이 관찰된다. 한편 南壁의 中央部는 小谷地로서 흔적이 분명하지 않고, 北·東壁은 거의 붕괴되었으나, 田地의 境界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크기가 다양한 雲母片岩과 變成岩으로 구축된 石城으로 住民의 傳言에 의하면 北壁의 石築部 밑



사진 11 羽溪山城의 遠景(城의 동쪽 沖積地에서 撮影)

에서 鹽分이 包含된 것으로 보이는 板築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城內에는 土器 및 瓦片이 散在되어 있다. 築城時期는 新羅時代로 推定되고 있는데¹⁸⁾, 그것은 玉溪面一帶가 '본래 高句麗 羽谷縣이었으나, 新羅景德王 때 羽溪縣으로 改稱된'¹⁹⁾ 사실에서 이 성을 당시 縣의 機能과 關聯된 山城으로 간주한 데에 基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深谷里 竹箭洞의 高峴城

一名 長安城, 또는 安土城으로 舊行政區域上 墨湖邑에 속하였으나, 東海市の 發足으로 望祥洞에 편입되었다. 여기서는 舊溟州郡城을 研究範圍로 設定하였으므로 종래의 邑·里名을 基準으로 삼았다. 이 성은 馬上川 下流의 沖積地 쪽으로 돌출한 丘陵(70 m)의 南斜面에 발달된 小谷地를 둘러싸는 土城으로, 自然石이 부분적으로 包含되어 있다.

北壁의 外側에 削土한 흔적이 관찰되나, 現在 城跡의 높이는 1 m, 上部의 폭 2 m, 둘레는 약 700 m 이다. 성안에는 井址 1個所가 分布하고, 평탄한 부분은 畚地로 利用되며, 傾斜地는 果樹園으로 개간되었다. 住民의 傳言에 의하면 이 성 부근에서 半月形石刀가 수집된 바 있다고 한다. 현재에도 土器 및 瓦片이 散在하며(사진 12 참조), 野外調査에서 卍形 文樣이 있는 瓦片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瓦片은 忠北 南東部地方에서도 수

18) 江原日報社, 前掲書, p.199.

19) 《新增東國輿地勝覽》, 江陵大都護府 屬縣條.



사진 12 高峴城內의 土器 및 瓦片

집되고 있다²⁰⁾. 築城年代에 대해서는 高句麗²¹⁾, 또는 高麗初期²²⁾라고 하는 두 見解가 提示되고 있다.

4. 立地面에서 본 古代山城의 類型

前節에서는 江陵地域에 分布하는 12個 山城의 특징을 野外調査內容에 따라 個別的으로 살펴 보았다. 그 가운데 文獻이나 關聯遺物 등을 통해서 築造年代를 推定할 수 있었던 것은 一部分에 불과했으나, 그 結果에 의하면 대체로 三國 내지 新羅統一期の 山城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山城이 平地城인 邑城에 비해서 古代的이라고 생각한다면²³⁾, 年代推定이 곤란했던 대부분의 이 곳 山城들도 古代의 遺蹟으로 추리해서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추리는 本地域에 있어서 軍事的 要衝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뚜렷했던 時期가 古代였다는 사실²⁴⁾과도 合致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本節에서는 前述한 山城들을 立地의 側面을 中心으로 하여 假說的이나 2個의 類型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1) 野山型 山城

既述한 本地域의 山城들 가운데 海拔 100 m 미만의 丘陵地帶에 分布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記述의 意味에서 野山型 山城으로 呼稱하기로 한다.

이러한 類型에 속하는 山城들은 대부분 標高 70~80 m에서 30~40 m의 지점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橋虛城을 비롯한 溟州·王峴·長安·高麗·三韓·羽溪·高峴의 8個城이 그것으로서, 이들은 王峴城과 高麗城을 除外하면 예외없이 그 前面에 河川下流의 灣入狀沖積地를 隨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內容을 具體的으로 例示하면 <그림 2>와 같다. 또한 이 城들은 그 둘레도 1 km 內外에 불과하여 小規模이고, 井址 및 建物址로 보이는 平地 등을 內包하고 있으며, 相互間의 直線距離는 最少 4 km에서 最大 12 km에 이르러 있어 近接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성벽의 構築材料로는 土·石을 混用하고 있는 등의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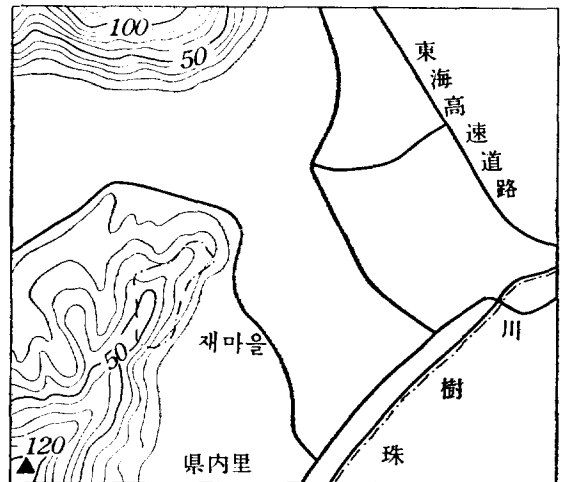


그림 2 羽溪山城의 周邊圖

이와 같은 立地 및 構造面에서 類似性을 보이는 野山型 山城들은 어떠한 機能을 발휘하던 物質文化로 이해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問題視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直接的인 文獻下의 資料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假說的이나 다음과 같이 推定해 보고자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新羅下代에 이르러 中央政府의 地方에 대한 統制力이 弱화되어 감에 따라 地方의 勢力家들은 城主 또는

20) 李在俊, 1976, 忠北의 기와, 서울, 유림사, pp.108-25.

21) 臨瀛誌發刊委員會, 前掲書, p.218.

22) 江原日報社, 前掲書, p.158.

23) 矢守一彦, 1970, 都市プランの研究, 東京, 大明堂, p.239.

24) 徐炳國, 1981, "游海와 新羅의 國境線問題研究", 關東大學論文集, 9, pp.443-45.

將軍을 自稱하면서 獨立勢力으로 成長하고 있었다. 이러한 勢力 가운데에는 원래 中央貴族이었으나 몰락하여 地方에 落鄕함으로써 地方土着勢力化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 主流를 이룬 것은 郡縣의 行政體系 밑에서 村落民들을 統制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地方의 村主出身들로서 이들은 연합하여 中央政府 및 中央貴族들의 加혹한 수취와 草賊들의 약탈로부터 地方農村을 自衛할 수 있는 兵力을 가지게 되었다²⁵⁾. 그런데 山城이 一次的으로는 軍事的 防禦機能을 가진다고 볼 때, 당시의 그러한 社會狀態下에서 村主를 위시한 地方의 勢力家들이 自衛를 위한 築城 등의 防禦施設을 構築했으리라는 것은 推理하기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新羅下代의 社會相과 관련지어 볼 때, 注目되는 것은 이 野山型 山城들 가운데 長安城이라는 共通의 別稱을 가진 溟州·王峴·高峴의 3個城과 茅田里의 長安城이다. 이 城들은 首都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른바 長安으로 呼稱되고 있는데, 이에 新羅 憲德王 14年(822)에 熊川州 都督이었던 金憲昌이 반란을 일으켜 國號를 長安이라고 한 사실²⁶⁾이 想起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長安이라는 호칭은 당시의 地方의 土着勢力家들이 그들의 勢力地盤을 誇示·指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려되는 것이다. 특히 前述한 바와 같이 溟州城은 ‘新羅 太宗武烈王의 次子인 金仁問의 直系孫으로서 中代王室의 傍系分派 가운데 한 파의 代表자였던 金周元이 王位繼承競爭에서 밀려나 溟州(江婁) 地方으로 落鄕하여 溟州郡王으로 稱해졌던’²⁷⁾ 당시의 根據地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綜合하여 볼 때 이 城들은 新羅下代의 地方豪族들과 關聯된 遺蹟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이것들이 新라 하대의 地方豪族들과 關聯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 初築年代로 간주하기는 困難하다. 韓國山城의 起源을 三韓時代以前²⁸⁾, 또는 三韓時代인 紀元 1~2世紀頃²⁹⁾에서 구하는 見解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城들은 그 前面에 있는 河川下流의 沖積地와, 後面의 低丘陵에 隣接하고 있다. 그런데 三國初期에는 이미 本格的인 農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現農村의 住居立地인 山麓部를 中心으로 聚落이 形成되어 갔으므로³⁰⁾, 이러한 立地는 당시의 生産基盤인 農耕의 側面에서 보더라도 豪族勢力의 成長에 유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도 新羅土器片이 수집된 橋虛城과 羽溪山城의 前面에는, 嶺東地方에서 가장 넓은 江陵 南大川邊에 버금가는 沖積地가 展開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그러므로 앞서 記述했듯이 統一新羅期에 溟州의 領縣이었던 支山縣(連谷)과 羽溪縣(玉溪)은 바로 이들 兩城의 附近에 位置하고 있었던 것으로, 당시의 縣治들은 農業生産의 基盤 위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立地面에서 例外的인 것은 高麗城과 王峴城이었다. 그 중에서 前者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海岸에 近接하고 있어 特殊한 機能을 발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王峴城은 고도 20~40m에 걸쳐 발달되어 있는 緩斜面邊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先史時代로부터 古代에 걸쳐서도 韓半島의 農業은 火田開拓 穀物農業을 主軸으로 삼아 發展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만큼³¹⁾, 緩斜面을 背景으로 한 本城도 長業의 生産基盤이라는 側面에서는 餘他的 野山型 山城들과 類似한 性質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2) 高山型 山城

本地域의 山城中에서 太白山地 分水嶺에 隣接하여 標高 700~1000m의 山麓에 分布하는 것들을 記述的인 의미에서 高山型 山城으로 呼稱함으로써 前述한 野山型 山城과 區別하고자 한다.

이 類型에 속하는 것으로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峨嶺山城과 普賢山城·帝王山城이 있다. 이들은 서쪽의 太白山地 分水嶺에 비해서 대체로 1段 낮은 山脚에 築造되어 있고, 그 둘레도 3~

25) 국사편찬위원회, 1978, 한국사, 3, pp. 501-2.

26) 上揭書, p. 462.

27) 上揭書, pp. 460-61.

28) 李丙燾, 1973,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瑞文文庫, 71, 서울: 瑞文堂, pp. 337-41.

29) 上田正昭, 1977, 城, 日本古代文化의 探求, 東京, 社會思想社, p. 210.

30) 金元龍, 1974, “三國初期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大 論文集, 人文社會系, 19, pp. 38-40.

31) 金相昊, 1979, “韓國 農耕文化의 生態學的 研究,” 서울大社會科學 論文集, 4, pp. 97-104.

5 km로서 大規模일 뿐 아니라, 城壁의 구축재료로는 주로 石材를 이용하고 있다. 성의 內部에는 수개처의 建物址와 음료수의 供給이 가능한 小谷地가 內包되어 있다. 이러한 共通點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山城들이 江陵周邊의 低丘陵地와 水平·垂直의 兩面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石城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山城들은 일단 野山型 山城과는 機能面에서 別個의 것으로 推定되는 것이다.

이 山城들의 機能을 살피기에 앞서 이들 중 峨嵋山城과 普賢山城을 <그림 3 및 4>를 통해서 살펴보자. 먼저 阿米 산성에 있어서는 남서쪽 城壁이 없고, 성벽이 內·外로 區分되고 있어 그 形態가 특이하다. 또한 老人峰(1,338 m) 동쪽의 세칭 小金剛溪谷(피동 부근)의 남쪽 산에 立地하고 있으므로 外部의 低地와는 完全히 隔離되어 있다. 한편 普賢山城은 太白山地 分水嶺을 이루는 坤申峰(1131 m) 동쪽의 100여 m 낮은 山脚에 立地하여 이 地域의 山城 가운데 最高地點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러한 類型의 山城들은 어떠한 機能을 발휘하던 것인가가 問題視되지만, 이에 관한 신

빙성있는 자료는 發見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을 野山型 山城과 對比시켜 推理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野山型에 비하여 規模面에서 일등하게 大型化하고, 石築部의 웨이트가 커지며, 특히 低丘陵地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城의 규모가 커지는 때에는 보다 큰 勞動力이 要求될 것이다. 또한 石築部의 비중이 증대된다는 것은 築城術의 發達이 前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年代는 野山型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³²⁾. 그리고 生活舞臺인 低丘陵地로부터 격리된 곳에 축성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狀況이 介在된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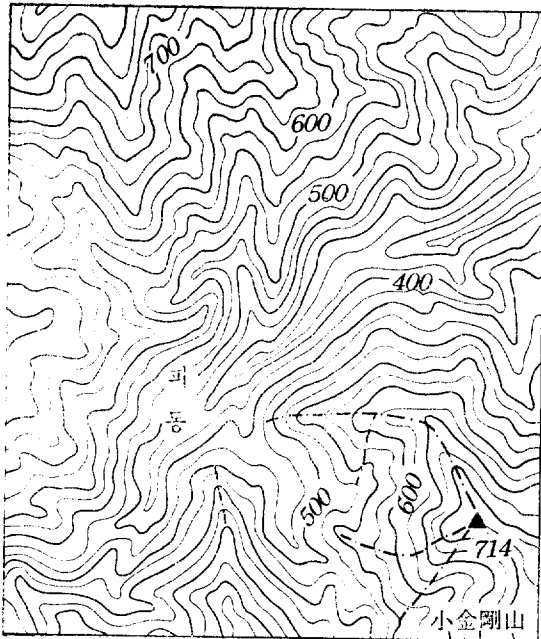


그림 3 峨嵋山城의 周邊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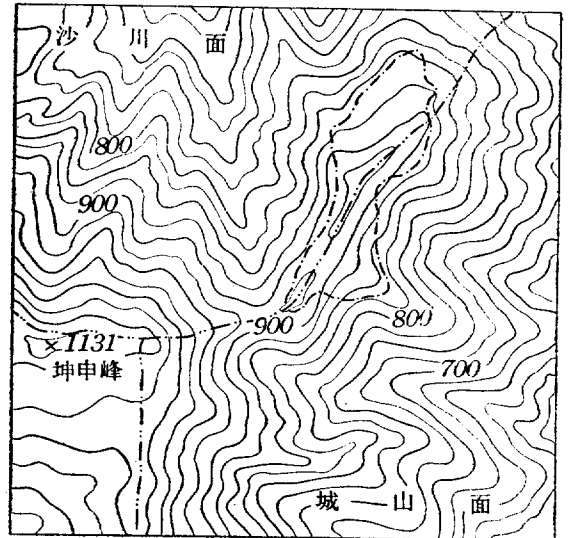


그림 4 普賢山城의 周邊圖

대부분의 山城이 海拔 300~400 m 以下의 丘陵에 立地하여 日常生活과 密接하게 關連되어 있었다고 볼 때, 이들은 例外的인 경우로 여겨지는 것이다. 더우기 朝鮮後期에도 大關嶺을 통과하는 道路邊이 4日間の 旅程에도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森林으로 덮여 있었다면³³⁾, 일시적인 避難을 위해서 그와 같은 高地를 擇할 必要는 없었을 것으로 추리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點들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野山型 山城보다는 後代의 遺蹟으로 보이며, 이들을 築造한 勢力集團은 低丘陵地

32) 李丙燾, 前掲書, pp. 341~42.

33) 李重煥, 《擇里志》, 八道德論 江原道條.

의 그것과 對立的인 立場에 처해 있던 特殊한 集團으로 史料된다. 時代的으로는 이 山城이 韓國 史上 최대의 內亂期였던 後三國時代³⁴⁾, 아니면 그 외 어느 時期에 속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이 성과 관련된 勢力集團도 江陵地域의 土着勢力, 혹은 外地로부터의 流入民 集團인지는 역시 未知의 사실에 속한다. 그런데 峨嵋山城에 관련하여 麻衣太子가 충신들을 거느리고 이 곳에 築城하고, 기를 닦으며, 앞날을 기다렸다는 傳說이 있는 점에서³⁵⁾, 上述한 바와 같이 이 山城들이 捲土重來를 圖謀하던 集團과 어떠한 關聯성이 있었음을 示唆하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5. 結 語

以上에서 江陵地域에 分布하는 古代山城들을 立地上的 特色을 中心으로 類型化해 보았다. 이제 結語에 代하여 이를 要約·整理하고자 한다.

江陵地域은 嶺東一圓에서 가장 넓은 南大川 下流의 灣入狀 沖積地와 그 周邊의 低丘陵地를 背景으로 일찍부터 農耕基盤의 初期國家가 形成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이 地域은 三國時代에 高句麗와 新羅의 前哨基地로 각각 利用되었으며, 이러한 中心地의 位置는 高麗·朝鮮時代를 통해서도 계속 維持되었다.

이러한 背景下에 本地域에는 總 12個의 山城이 남겨졌다. 이 山城들은 일부의 文獻資料와 現地 調査時 蒐集된 遺物들에 의해서 대체로 新羅統一期를 中心으로 한 遺蹟들로 推定되었다. 이러한 推정은 山城이 平地城인 邑城에 비해서 古代的일 뿐만 아니라, 이 地域의 軍事的 要衝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뚜렷했던 시기가 古代였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이 古代山城들은 立地의 側面에서 크게 兩分되어진다. 標高 100 m 미만의 低丘陵地에 分布하는 野山型 山城들은 대개 70~80 m에서 30~40 m에 걸쳐 나타난다. 이 類型의 山城들은 前面의 灣入狀 沖積地에, 그리고 後面의 低丘陵地에 각각 近

접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그 둘레가 1 km 內外에 불과하여 小規模이고, 상호간의 直線距離는 적어도 4 km 이상에 달하여 近接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로 土·石으로 構築된 점등의 共通性을 지니고 있다. 이 山城들은 대체로 新羅下代에 半獨立인 勢力을 형성하면서 村落民들을 統制하던 地方豪族들의 自衛를 위한 防禦施設로 추려진다. 長安城의 別稱을 가진 溟州城·王峴城·高峴城과 茅田里의 長安城 등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 특히 溟州城은 江陵金氏의 始祖인 金周元의 勢力地盤으로 傳해지고 있거니와, 海邊에 立地한 高麗城을 除外하면 대부분의 野山型 山城들은 이러한 機能을 발휘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은 當時 農業的 生産基盤 위에서 있던 豪族들과 관련된 山城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太白山地 分水嶺에 近接하여 高度 700~1000 m에 이르는 山脚에 立地한 高山型 山城들은 그 둘레가 3~5 km에 달하여 비교적 規模가 크고, 주로 石城에 속하는 등 野山型 山城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低丘陵地와 水平·垂直의 兩面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들은 別個의 機能을 발휘하던 것으로 보인다. 성의 규모가 커지고, 石築部의 비중이 증대한 사실은 보다 큰 勞動力과 進一步한 築城術이 要求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보다 後代의 遺蹟으로 여겨진다. 峨嵋·普賢·帝王山城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단순히 일시적인 避難이 主目的이라면, 그러한 高地를 擇할 必要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山城들과 有關한 勢力集團은 低丘陵地의 그것과는 對立的인 立場에 있던 集團으로 史料된다. 時代的으로 볼 때, 이 集團은 韓國史上 최대의 內亂期였던 後三國時代에 속할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여하튼 捲土重來를 圖謀하던 勢力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文獻資料가 不足하고, 野外調査도 地表調査에만 依存한 狀態에서 研究를 進行시킨 結果, 지나친 推定을 한 部分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後日에 補完하고자 한다.

34) 국사편찬위원회, 前揭書, pp. 614-50.

35) 江原日報社, 前揭書, p. 214.

Ancient Castles in the Mountains of Gangreung District

Joon-Seon Lee*

Summary

In Gangreung District, the eastern part of Gangwon-Do, still stand twelve ancient castles on the mountain slopes. It is supposed that these castles were constructed during the year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early Unified Silla Dynasty. These cultural monu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site and size. One type is situated on hills at altitudes of less than 100 meters, say from 80m down to 30m; the other type is at altitudes of from 700 to 1000m.

In the former are included the Myongjoo-Seong(溟州城), Gohyon-Seong(高峴城), and others. Each of these, with walls constructed with stone and earth, is shorter than 1 km in length. The castles are located near the alluvial plains which developed along the lower

courses of the small rivers in the study area. It is mentioned that Myongjoo-Seong is supposed to have been related to Kim Chu-Won(金周元), who was a local power in this district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Consequently, the castles of the former type, at low altitudes, are supposed to have had a relation to local powers in those days.

In the latter type of castles are included the Bohyon-Sanseong(普賢山城), Ami-Sanseong(峨嵋山城), and others. Each of these, with walls constructed of stone only, is longer than 3km in length. In particular, they are situated next to the summit areas of the Taebaek Mountains, and at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former type. These facts suggest that the castles of this type may have been built by the groups attempting to gather strength for an attack to recapture their former territory.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 25, pp.15-27, 1982.

*Assistant Professor, Kwandong College.